

# 첨단 기술 도입·인프라 탁월...광주는 양궁선수 '꿈의 무대'

### 강기정 시장, 세계양궁연맹총회서 교통·숙박시설 등 광주 홍보

광주시는 2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타이타닉 쇼세 호텔에서 열린 세계양궁연맹(WA) 총회에서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비전인 'Target Up, For Tomorrow(미래를 위한 타겟 업)'을 공개했다.

광주가 내세운 대회 비전은 양궁의 궁극적 목표인 '타겟'이 양궁을 사랑하는 이들의 공통적 꿈과 도전의 의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대회 콘셉트는 '타겟(TARGET)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첨단기술(T)의 도입, 양궁에 대한 접근성(A) 개선(R), 문화적(G) 확산(E), 세계양궁연맹 철학 공유(T) 대회'로 설정했다.

광주시는 또 이날 차기 대회 개최지 홍보 영상을 통해 다양한 기반시설(인프라)과 탁월한 경쟁력 등을 설명했다.

영상은 광주시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양궁을 사랑하는 도시이자, 월등한 경기력과 기술력을 가진 '양궁도시 광주'를 강조했다.

광주 출신 금메달리스트로, 세계 양궁 스타로 자리매김한 안산·기보배·최미선 선수 등을 소개하고,

세계 각국 선수들이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경기시설을 보유한 점을 설명해 총회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경기 시설 가운데 우선 2025년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예선 경기장으로 사용될 광주 국제양궁장은 105개 국가의 8500여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 장소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광주 출신 한국 최초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서향순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옛 서향순 올림픽 제패 기념 양궁장(현재 월드컵경기장 내 축구센터)도 연습 경기장 등으로 제공된다.

결정전은 광주의 정신적 유산을 대표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이 위치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아울러 광주 시내 1700여 실의 호텔과 인천공항-광주 간 셔틀버스 운영, 시내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연맹 및 대회 조직위 관계자, 선수단 등에 대한 지원 내용도 이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번 총회 참석을 통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차기 개최도시 광주를 국제무대에서 알리고, 세계양궁연맹과 다방면으로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령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광주시대표단이 28일(현지시간) 오전 독일 베를린 타이타닉 쇼세 베를린 호텔에서 열린 '세계양궁연맹(WA) 총회'에 참석해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앞으로 대한양궁협회와 광주시 양궁협회 등이 참여한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산, 기보배 선수 등을 내세워 지역적·국제적 대회 홍보

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광주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양궁 도시'가 됐다"면서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를 통해 양궁 종목과 지역발전, 국가 및 도시 브랜드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원일 기자 cki@

## 베트남 관광객, 지역 경제 '큰 손' 부상

### 비씨카드 전남 이용실적 303% 증가...관광 전략 필요 목소리

전남도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 관광객이 적극적인 소비에 나서면서 지역 경제에서 '큰 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동남아 관광객을 유인할 구체적인 관광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씨카드가 최근 3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20여만명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 관광객의 전남도내에서의 카드 결제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배 이상(303%) 늘었다. 서울(798%), 제주(527%), 경기(330%), 부산(318%)에 이어 다섯 번째 증가세다. 관광 목적 조사를 위해 국내 체류 90일 이상자 결제카드를 제외된 통계로, 전남이 우리나라 주요 인바운드 여행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특히 비씨카드는 전남을 찾은 베트남 관광객 카드 이용실적 급증의 원인으로 올해 3월부터 시작한 베트남 단체관광객 대상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 효과가 큰 것을 분석하고 있다. 카드 결제액이 증가한 전남의 주요 관광지는 여수 이순신광장, 남만포차거리, 해상케이블카, 목포 유달산, 해상케이블카, 삼학도코르스, 갯바위, 순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순천드라마촬영장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비씨카드가 발표한 외국인 관광객 국적별 1회 카드결제 평균 금액에서 베트남 관광객

은 19만7000원이었다.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이용 베트남·태국 관광객 및 여행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행객이 숙박, 식비, 입장료 및 특산품, 면세품 구입으로 1인당 95만원 정도 지역경제에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태국과 베트남 관광객 2000명 이상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전남을 찾았고, 김해공항 입국 1000여명의 태국관광객도 전남을 방문했다. 전남도는 구매력 있는 베트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나트랑, 달랏, 다낭에서 호치민, 하노이까지 전세기 노선을 확장하고 있고 특히 무안-나트랑 노선은 10월에 코로나 이후 첫 국제 정기선 취항을 앞두고 있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해외 관광객 유치 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남의 강점인 섬, 해양, 생태 등 청정 자연환경과 지역 특화 문화자원, 게임진 음식 등을 활용한 국가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홍보로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적극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하나카드에서 발표한 코로나 이전 대비 외국인 관광객 카드이용금액 증가율에서도 전남(50.3%)이 제주(49.9%), 서울(41.5%), 부산(26.6%)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대병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연말까지 운영

### 새 위탁기관 선정 못 해...市, 다음달 3일 공공성 확대 집담회

새 위탁기관을 찾지 못해 운영 중단 위기에 빠졌던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이 올 연말까지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이달 말 위탁 운영 계약을 종료하려던 전남대병원측과 5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대학교병원과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연장 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시립제2요양병원의 지속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자인 전남대병원과 연장계약을 협상한 끝에, 전남대병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31일 운영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대병원은 시립요양병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양측이 적극 협력하고, 연장 계약 기간 발생한 운영손실금은 전액 보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앞서 전남대병원은 그동안 5년씩 두 번에 걸쳐 요양병원을 운영했으나 적자 등을 이유로 31일 계약 만료일 이후 운영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손실액만 최소 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새로운 위탁 기관을 공모했지만, 단독으로 응모한 의료법인마저 운영 의사를 철회한 상태다. 광주시는 일단 위탁 기관을 구할 때까지 전남대병원과 계약을 연장하고, 그 기간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새 운영 기관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노조가 지난 7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기존 환자들의 퇴원, 전원 조치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새 운영기관을 찾더라도 운영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한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는 새 운영기관 공모와는 별도로 낮은 의료수가와 높은 운영비 등 고질적인 적자 구조 해소를 위한 시립요양병원 운영비 지원조례, 국비 지원 요청, 적자 운영 개선 연구용역 추진 등 시립요양병원의 경영 개선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지원체계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8월 3일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민관협치협의회 주최로 공공의료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의 광주시립요양병원 갈등 해법 모색 집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해남서 '친환경농업인' 화합의 장

### 9월 8~9일 우슬체육공원에서 전국대회...비전 제시·실천 결의 등

대한민국 친환경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2023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가 9월 8일부터 이틀간 해남 우슬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안심을 넘어 신뢰의 농업으로'를 주제로

로 친환경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결의를 통한 화합의 장으로 열릴 예정이다.

9월 8일부터 3일간 해남군 우수영관광지 일원에서 열리는 '2023 명랑대접축제'와 연계해 축제장에 친환경농업홍보관과 농자재 등 전시·판매, 친환경농산물 홍보·시식 부스를 상설 운영해 관광

객에게 전국 지역별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등 대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회를 주최하는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친환경농업단체가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출범했다. 전국 10개 시·도 친환경농업협회와 함께 정책 및 제도 개선, 친환경 농업교육·홍보와 자조금 사업활동 등 친환경농업 육성과 소비촉진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대한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